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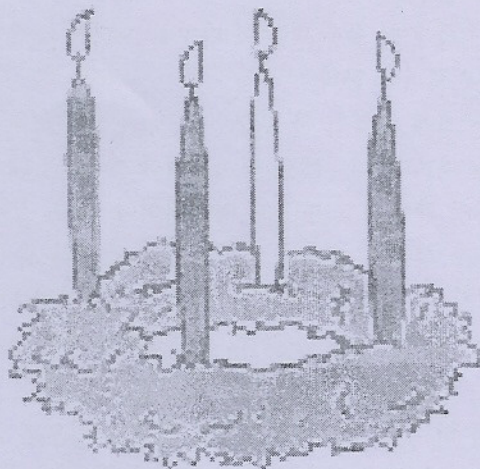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4주일
 제27권 4호 (다해) 2006-12-24

[묵상]



촛불 하나 :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카 21,36)

촛불 둘 :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루카 3,4)

촛불 셋 :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카 3,10)

촛불 넷 :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43)

오소서, 임마누엘! :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 1,23)

◆ 박상대 마르코신부

미사

번역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면영회 (장례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3단계)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성서반	오후 2:00 오전 10: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이야기 성서반 M. E.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영어권 Bible Study 병자 영성체 1째주 - 구역장/반장 모임 2째주 - 빈첸시오회 모임의 날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성가대 모임	오전 9:00 매 주일 오전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전 9: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신부님 218-8432, 수녀님 218-8282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박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심군희 아그네스, 임삼옥 & 김광녀, 김시형 치릴로 이순 말지나
	(생)민영준 마르코, 성나호 요셉 가정, 박테레사 가정 차인수 안드레아 가정
주 일 미사	(연)김금란 수산나, 김시형 치릴로, 최순임 마리아 향환순 루치아, & 최동열, 이현호 요한, 데니스 웨버 이영자 마리아, 이종무 바오로
	(생)박호준 마리아, 양갑순 마리아, 김여희 마리안나 김지연 베로니카, 김순희 모니카, 박경태 마르코, 이아이린 이종민 요셉, 정아그네스, 최상만 사비노 & 양숙 안젤라 오세원 아타나시오 & 루시아 대자, 대녀들을 위하여 홍석연 체칠리아, 윤영선 에밀리, 김정석 베드로가정 유부향 카타리나 가정, 박진수 스테파노 가정 육재민 미카엘 가정, 글로리아성가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미카 예언서 5,1-4ㄱ
화답송	◎ 하느님 저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전례성가 61 대림 제4주일 C해>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들어주소서. 케루빔 위에 좌정하시는 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권능을 떨치시며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주 만군의 주 하느님 돌아오소서. 하늘로서 굽어보사 살피주소서. 비오니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이 심어 주신 줄기를, 당신 위해 실히 해 주신 그 가지를 지켜주소서.◎ ○당신의 오른손 쪽 사나이 위에는 당신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는 당신의 손이 있게 하소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니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기리오리다.◎
제 2독서	히브리서 10,5-10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복 음	루카 1,39-45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 ~ 58	26 ~ 32
입당	130	128
봉헌	364	255, 264
성체	283	290, 302
파견	124	13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제1장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

성서, 설교, 전례적 교리교육

35. 전례 안에서 예식과 말씀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 1) 전례 거행에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고 더욱 적합한 성서 봉독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강론은 전례 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예식이 허락한다면, 더 알맞은 자리가 예규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교의 직무는 가장 충실하고 바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주로 성서와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이는 구원의 역사 곧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신비는 우리 가운데에 특히 전례 거행 안에 언제나 현존하고 또 작용한다.
- 3) 전례의 더 직접적인 교리교육도 모든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식 자체 안에서 사제나 관련 봉사자가, 오로지 더 적절한 때에만, 미리 쓰여진 말이나 비슷한 말로 짙막한 권고를 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4) 말씀 전례는 대축일 전야에,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의 어떤 평일에, 그리고 주일과 축일에, 특히 사제가 없는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제나, 주교에게서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이 인도하여야 한다.

전례 언어

36. 1) 라틴어의 사용이, 특수법은 유지되지만, 라틴 예법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 2) 그러나 미사 또는 성사 집전 또는 전례의 다른 부분에서 드물지 않게 모국어의 사용이 백성에게 크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여지가 거기에 부여될 수 있다. 주로 독서, 권고, 어떤 기도문과 노래에서, 이 일에 관하여 다음 장들에서 낱말이 세워지는 규범에 따라 그러할 수 있다.
- 3)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며, 관할 지역의 교회 권위는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또한 사정이 요구한다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인접 지역 주교들과 협의를 가져, 모국어의 사용과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전례에서 사용할 라틴어 본문의 모국어 번역은 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시는 분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언젠가는 이 말만으로도 설레고 흥분한 때도 있었지요. '성탄 전날'이 아닌 '크리스마스 이브'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것을 영원하게 하고 또 그런 소망이 흰 눈으로 내리며 세상을 하얗게 덮을 것만 같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순백의 눈으로 내리는 밤을 기원해 봅니다. 조용히 그리고 지극한 평화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 우리는 네 번째 대림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수신인입니다. 주님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 2인극처럼 베들레헴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유다의 목자(임금)들을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 "(미카 5,1) 지극처럼 베들레헴이 지명(地名)이 아닌 인명(人名)으로 느껴지는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그 '베들레헴'이 사람인양 그 곁에 앉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수줍은 처녀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니 모두 옳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루카복음의 성모님도 그러셨지요.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루카 1,45) 하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상대방을 믿어주는 신뢰가 성경의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 ' 생각해 보면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 위에 오늘 밤 구세주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아니, 처녀 마리아께서 품어 안으신 아기. 인류의 구세주께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광경을 보니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든 아이러니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아기에게 경배 드립니다.

그러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온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소나 양 또는 곡물을

희생제물이나 봉헌물로 바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하시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을 취하여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그분의 탄생에는 이렇게 이미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놀라운 신비! 그래서 오늘 미사 본기도에서 우리는 "주님, 천사의 아킴으로 성자 그리스도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 마음에 내리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주님의 성탄, 가장 큰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참으로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도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소서.

"오늘 베들레헴에게 말씀하시듯 주님, 제게도 뭐라고 말씀해주시렵니까?" 아니,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겠지요. 생각하면 당신께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은 것 같았는데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큰 별 하나가 높이 빛나고 있지만 목자도 동방박사들도 아직 방문하지 않은 때, 이 지극한 고요와 평화 속에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그렇게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들의 바램, 세기와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그 무엇이 당신, 여기 베들레헴의 '당신'이라는 정점으로 소급되어 하늘의 큰 별처럼 빛납니다.

이제 대림절 여정은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이천년 전의 베들레헴, 성탄의 첫 새벽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당신의 마음이겠지요. 이 여정의 목적지이자 유일한 동행이셨던 분, 목적지의 안식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이제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식과 평화, 성탄의 축복이 흰 눈처럼 내리기를 염원하는 밤입니다 ...

● 이기락 타대오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엄영숙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최영신 (프란치스코)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구스틴)	모은기 (다두)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2독서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김정심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 남 2, 4반	제물봉헌자			P. V. 3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 3,457 ☞ 총 합계 : 63,973

☞ '사랑의 종소리' 전의함 비치 ☞

- 본당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랑의 의견들을 모읍니다.
- 무기명과 익명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사랑의 종소리' 전의함은 성전 입구 사제 집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백삼위 신앙학교 임시휴강

- 12월26일(화), 1월2일(화)

◆ 주일학교 Youth Council 기금마련 성탄 초 판매

- 12월24일~25일, 매 미사후

◆ 주일/한국학교 겨울 방학

- 주일학교 : 12월31일~1월28일
- 한국학교 : 12월24일~1월7일

※ 방학동안 주일학교 9시30분 English 미사 있습니다.

◆ 2007년 본당달력과 신자수첩을 배부합니다.

- 새해 달력 : 한 가정에 한 부씩
- 신자수첩 : 각 구역 반장님들께서 직접 배부합니다.
- ※ 소공동체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성탄 시기 ❖



성탄시기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백삼위 모든 가정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 성탄, 송년, 신년미사 안내

- 성탄 밤미사 : 12월24일(주일) 오후 9시
- 주님성탄 대축일: 12월25일(월) 오전 11시
- 12월31일(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오전 7시30분, 오전 9시30분(학생미사), 오전 11시
- 송년미사 : 12월31일(주일) 오후 9시
- 신년미사 : 1월1일(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11시

◆ 배른청년회 송년의 밤

- 12월 29일(금) 오후 6시, 강당
-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뜻있는 많은 본당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 글로리아 성가대 송년의 밤

- 12월 29일(토) 오후 7시, 사제관

◆ 원서 부부회 송년의 밤

- 12월 30일(토) 오후 8시, 강당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12월24일 : P. V. 1반 (김밥 \$3)
- 12월31일 : 토렌스 서 1반 (김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정현	강태홍	구자운	권오상
김병태	김용현	김우용	김일선
김철수	남명자	복덕순	문영일
민봉식	박기돈	박동수	박수익
박현주 (S)	반비오	변세연	안재만
원건희	유근태	유선식	육근주
이경태	이근태	이명자	이석진
임성택	임연조	임현기	장정진
최애경	홍석철	홍숙자	홍주희
박제이킴			황지영
합계 : \$8,310			
미사헌금	\$2,220	은퇴 수도자들을 위한 2차헌금 : \$50	
감사헌금	이종한	윤석구	

◆ 성 토마스 어린이 합창단 성탄 연주회

주님의 탄생에 관한 9개의 성경 묵상과 함께 전통적인 캐롤과 어린이들을 위한 팝캐롤을 들으실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9개의 독서와 캐롤 (9 Readings and Carols)'
- 12월31일(주일) 오후 5시
- 성토마스 성당 성전 (714)772-3995
412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청년 프란치스칸(FYLA) 피정

- 주제 : '참 기쁨'
- 강사 : Br. Mark Schroeder, OFM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 2007년 1월19일(금), 오후 7시~21일(주일), 오후 2시
- Serra Retreat Center, Malibu, CA
- 신청 마감일 : 1월14일(주일) ● 참가비 : \$160
- 문의 : 손진업 스테파노 (714)791-7515

◆ 미주 가톨릭 방송

☞ 인터넷 방송

- www.kcbcus.org

☞ 생방송

- 라디오서울 : AM 1650 khz Sat. 9:00pm ~ 10:00pm
- 라디오코리아 : AM1230 khz Sun. 5:30am ~ 6:30am

◆ 고등학생 골롬반 선교회 모임

- 매월 세째주 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 문의 : 한경숙 안나 (530-7702) 오후 6시 이후

사람을 구합니다.

❖ 한미은행 ❖

- 분야 : Help Desk, Application Support (2명)
- 자격 : Fluent English, Basic computer knowledge
은행업무 무경험자 OK
- 연락처 : Fred Mo (213)505-5337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1시, 강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1시, 강당
----------	----------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791-5696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남자반 1째수 오후 7시, 성당 여자반 2째수 오후 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4	박진숙 엘리사벳 562-412-4021	박진숙 엘리사벳 562-412-4021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808-5005	1	김영남 레지나 514-016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4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544-6290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3	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놀라움과 기쁨의 상봉

루카복음 전사(前史)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오늘 대림 제4주일의 복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상봉장면을 전해준다. 두 어머니의 상봉은 동시에 예수와 요한의 첫 번째 내적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의 마리아를 찾아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후 며칠이 지났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지 6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마리아가 먼저 유다 산골에 살고 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다. 루카는 엘리사벳이 살던 장소를 '유다 산악지방'이라 하지만, 통상 예루살렘 서쪽 6Km 지점에 있는 '에인카림' 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이곳에 제관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이다. 나자렛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을 감안한다면 나자렛에서 에인카림까지의 여정은 족히 3-4일 걸릴 길이었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 먼 길을 서둘러 간 이유는 석녀(石女)였던 친척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1,36) 문안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오늘 두 어머니의 상봉에서 중요한 점 두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자. 첫째는 마리아가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 나선 것이며, 둘째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드린 칭송의 내용이다.

마리아가 메시아탄생의 예고를 전적으로 수용한 과정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는 석녀(石女)였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1,37)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다. 언뜻 보기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를 사실 확인의 차원이나, 연하(年下)의 위치에서 웃어른을 찾아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나,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기쁨을 공유(共有)하고 같은 처지를 나누려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의 동기나 이유라기보다 마리아가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예수의 탄생예고(1,26-38)에서 보았듯이 하느님께서 먼저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느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먼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다. 이는 곧 메시아가 선구자를 찾아간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마르코도 나중에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마르 1,9)고 했다.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리는 없다. 문안의 순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로 알아보고 칭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이 뛰놀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가득히 받았기 때문이다.(41절) 약간의 억측을 부린다면, 마리아가 문안을 드리는 순간에 성령 하느님께서 뱃속의 요한을 시켜 이를 알려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외적인 만남은 곧 두 뱃속의 아기들끼리의 만남이며, 엘리사벳의 찬가는 예수께 대한 요한의 칭송인 셈이다. 마태오도 나중에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온 예수께 요한이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마태 3,14) 하고 말했다고 기록한다. 물론 엘리사벳의 칭송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늘 마리아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상봉! 이는 두 여인이 하느님으로부터 입은 자비와 은혜, 놀라움과 기쁨의 상봉이기도하다. 예수님의 성탄은 어디 바깥 마구간의 구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성탄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이며, 바로 내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오늘 네 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진 대림환을 보면서 내 안에 구유를 마련하고, 오시는 하느님께 엘리사벳처럼 인사드릴 준비를 해야겠다.

◆ 본당신부